

지역 소식

2018년 북 아시아 지역 계획

북 아시아 지역에는 선지자께서 하신 위대한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질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높은 기대치, 그리고 명백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고대해온 약속들을 받도록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

모두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고, 개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지역 우선순위

1. 복음을 전파하고 개개인의 개심을 강화한다.
2.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일상에서 축복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목표

1. 복음을 전파하고 개개인의 개심을 강화한다.
 - 가. 물문경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자립을 확대함으로써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키운다.
 - 나. 개종자 침례, 실질 성장,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를 대폭 늘린다.
 - 다. 독신 성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 라. 저활동 회원을 한 사람씩 구조함으로써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의 수를 늘린다.
 - 마. 적극적으로 가족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 가져간다.
2.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일상에서 축복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 가.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을 줄이고 단순화한다.
 - 나. (가족 평의회를 포함한) 평의회와 선교부가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으로 일하게 한다.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음악은 삶을 풍요롭게 해 줍니다. 음악을 통해 교화되고 영감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음악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2쪽.)

교회 음악 위원회는 영어로 된 청소년 상호 향상 주제곡을 한국어로 제작, 배포하는 등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건전한 음악 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이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에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최윤희 장로의 감리 하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은 2018 청소년 상호 향상 주제곡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회 음악을 활용하여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서울 및 경인 지역 청소년과 부모, 청소년 지도자 등 350여 명이 모였다.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통역과 함께) 일본, 괌,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회원들에게도 이 행사가 생중계되었다.

처음 시도된 모임임에도, 복음을 주제로 한 창작 랩, 국악, 뮤직비디오, 독창, 남녀 듀엣 등 청소년 및 청년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영을 느끼는 동시에 즐거움이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에서 청소년은 음악을 올바로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서울 동 스테이크의 고등학교 3학년 동갑내기인 김수민 형제, 최동은 자매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은 음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후기 성도 뮤지션 이서진 자매의 축하공연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 자매가 영화 모아나 삽입곡 'How far I'll go'(한국어 제목: '언젠가 떠날 거야')를 열창하자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서진 자매는 2016년 SBS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 태양과 '눈, 코, 입' 듀엣을 선보였으며, 이 영상이 인터넷에서 조회 수 280만 건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자매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반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고3 이종민 형제가 부른 '세미나리'라는 제목의 자작 랩은, 힙합 비트 위에 청소년으로서 겪는 고충과 세미나리에 대한 간증을 담으며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세미나리 반원들과 간증을 나누고 모두의 경험을 랩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이 강화되었다고 간증했다.

“아침마다 전쟁이야 일어나기 위해 잔소리에 귀를 닫고 또다시 잠드네 맘속에선 이미 깨서 준비하는데 몸 따로 맘 따로 놓고 있네 ... 뽀뽀하게 들어 고개 치켜내 내 신념 이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와드의 고등학교 1학년 한송이 자매는 영적인 간증을 랩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신선했고 세미나리를 하는 청소년으로서 가사가 와닿았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 음악은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영이 고양돼서, 일상 속에서 옳은 행동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음악을 찾기가 힘든데, 앞으로 건전하면서도 대중적인 교회 음악이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돼요!”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랩 공연에 이어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청년 김남희 자매의 해금 연주도 주목을 받았다. 김 자매는 2017년 상호 향상 주제곡 ‘하나님께 구하랴’를 편곡하여 해금으로 연주했다.

교회 음악과 국악의 색다른 만남은 교회 청소년 상호 향상 음악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김예지 자매가 2018 상호 향상 주제곡인 “그리스도의 화평”을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주며 페스티벌은 마무리되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1 와드 청년인 어유진 자매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이나영 양은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교회에 처음 와 봤어요.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 어색하고 낯설 것 같았는데, 랩이랑 뮤직비디오가 친숙하게 느껴졌고 정말 재밌었어요!”

교회 음악 위원회는 2018년에도 건전한 청소년 음악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음악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창작 음악제’(가제)가 예정되어 있어, 관심 있는 청소년 누구나 2018 청소년 상호 향상 노래 및 기타 복음을 주제로 노래, 랩, 악기 연주 등을 창작하거나 편곡하여 참여할 수 있다. FSY 이후 하반기에는 뮤직비디오, 춤 등으로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청소년이 영을 고양하는 음악을 올바르게 선택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18 EFS(특별 장년 대회) 대회장 환영 인사

Especially For Seniors— 장년층을 위하여



오희근 형제
EFS 대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의 장년 여러분께,
오랫동안 가정과 교회,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한국의 역사를 건설해 오신 교회의 장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두 가지 과업 즉,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두 가지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오셨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노력의 결실을 기대하는 가운데,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유례가 없는 전국 규모의 장년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한 대회에 장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6월, 1박 2일 간의 장년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친교와 배움의 시간을 갖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회를 수개월 앞둔 지금부터 다음의 몇

가지를 준비하신다면, 이번 대회가 더욱 의미 깊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활동 장년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간증과 사랑을 나누고, 이번 대회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전 연구와 성전 참여 등을 통해 더 깊은 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3.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올 6월에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2018년 EFS 대회장 오희근 형제 ■

2018 EFS 안내 사항

EFS란?

EFS: ‘Especially For Seniors’, 즉 ‘장년층을 위하여’라는 뜻

참가 대상

55세 이상 교회 회원

대회 날짜

2018년 6월 경 예정

EFS의 목적

2018년 북 아시아 지역 계획 비전 - “모두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고, 개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

주제 성구

(마태복음 22: 37-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2018 FSY 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 환영 인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행복한 '2018 FSY 대회'에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저희 부부는 운영 위원장 부부로 부름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며, 벌써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FSY 대회는 연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영적 및 행동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안된 공과, 영적 모임, 활동들을 포함한 5일간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 여러분은 다음의 5가지 행복한 만남을 하게 될 것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계시를 받고 경전에서 응답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특히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간증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2. 주 닮은 조 고문과의 만남: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여러분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청년 독신 성인 고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3. 같은 믿음을 지닌 친구들과의 만남: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행복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4. 훌륭한 프로그램과의 만남: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고 긍정적인 공과 및 활동을 경험할 겁니다. 예를 들면, 게임의 밤, 깃발응원전, 버라이어티쇼, 음악프로그램, 무도회, 매일 밤 명상시간까지 모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 진정한 나와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깊이 개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어떤 가치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FSY를 위해 영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참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초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FSY 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 김종인, 윤지원 ■



준비 모임 보고: EFS, FSY 임원을 위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특별 기본 훈련 모임

지난 2017년 11월 25일 오전 10시, EFS 및 FSY 임원을 위한 준비 및 훈련 모임이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에서 열렸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최윤희 장로, 한국의 지역 칠십인 정태걸 장로, 구승훈 장로, 배동철 장로, 그리고 EFS, FSY 대회를 준비하는 60여 명의 모든 임원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고자 전국에서 새벽 일찍부터 출발하여 강남 와드로 모였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희 장로를 비롯하여, 지도자들은 이 훈련 모임을 통해 EFS와 FSY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임원들이 앞으로 모임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EFS와 FSY의 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이 모임에서 현실적인 여건들을 상의하는 데 더 집중할 수도 있었지만, 지역 회장단은 주님의 종들이 영적인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 회장단의 훈련 시간, *선교 사업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 자유 토론 등으로 이 모임이 진행되었다.

최윤희 장로는 훈련 시간에, 올림픽 양궁 경기를 들어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후르트도르프 회장이 말씀했던 '과녁의 정중앙', 즉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환기하게 했다. 최 장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우리가 겨누어야 할 정중앙, 즉 교회에서 하는 모든 노력이 지향해야 하는 초점임을 가르쳤다. "우리 시대를 진정 변화시키고자 소망한다면 ... 노력과 힘, 열정을 정중앙에 집중해야 [합니다.]"(정중앙을 겨누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1월호, 4쪽 참조) 발표와 토론 시간은 서로 간증하고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임원 중 한 명인 신아현 자매는 어려운 여건 중 주어진 부름에 헌신하고 나머지 일들이 해결되었던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EFS와 FSY를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은 계속해서 대회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다. ■

세상을 비추는 ‘부천 까치울 크리스마스 축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16)

네이티비티 및 기부 행사

“5, 4, 3, 2, 1, 점등!”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수천 개의 전등에 불이 켜지며 어둠을 밝게 비추었다. 교회 현관에 달린 큰 별에도, 나뭇가지에도, 3~5m 규모의 대형 트리에도, 그리고 네이티비티(아기 예수와 그분께서 탄생한 마구간 등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조형물)와 회원들이 판자로 손수 제작한 목자와 양 떼 무리에도 밝은 불이 들어왔다. 점등과 동시에 서울 서스테이크 지역 전임 선교사 합창단이 들려주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점등식 및 네이티비티 행사가 200명 이상의 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서스테이크 부천 와드에서 열렸다. 네이티비티(Nativity)란 ‘예수의 성탄’ 혹은 ‘예수의 성탄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 등을 의미하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예수 성탄을

재현하는 그림이나 조각을 전시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다. 부천 와드에서도 이 네이티비티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한 것이다.

서울 서스테이크 이인호 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 연말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네이티비티 행사가 부천시의 아름다운 볼거리로 자리 잡고, 지역 사회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서스테이크는 부천 와드가 위치한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 돕기 성금(250만원) 및 밑반찬을 전달했다. 부천에 신축 집회소가 세워질 당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와 맺은 인연이 성탄 절기를 맞아 이웃 돕기 기부로 이어진 것이다. 성금 250만 원은 2018년 1년간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곡동, 아기 탄생, 육아 응원'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두세 가정을 선정, 매달 맞춤형 육아용품을 제공한다.

행정복지센터의 황우연 주무관은 교회의 기부에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전했다. “관공서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생계비와 의료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육아용품을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공적 서비스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지원해주니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지역 주민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성금과 더불어 부천 와드는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밀반찬 후원 사업에도 참여한다. 1년간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손수 만든 20인분의 밀반찬을 지역의 저소득층, 특히 밀반찬을 만들기 힘든 독거노인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경기도 의원, 부천시 문화예술과 및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지역 방송국, 한국종교연합 관계자 등 부천시 지역 사회 인사 여러 명을 초대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회의 노력을 소개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장섭 과장은 “지역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세상을 비추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민에게 빛을 비추려는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네이티브티 조형물과 트리는 12월 말까지 설치되어, 성탄절기 내내 회원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튿날인 토요일 저녁, 부천 와드에서는 후속 행사로서 250여 명의 회원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막을 올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 대한 내레이션 및 영상과 함께 피아노 콰르텟, 와드 청소년, 성인, 가족 합창, 독창 등의 공연이 한 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칸타타 공연 관람을 위해 아들과 함께 멀리 강서구에서 교회를 찾은 어떤 어머니는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조형물을 구경하면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음악 공연을 보면서 교회의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

포항 지진 이재민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지역 지진(규모 5.4)으로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¹

이에 포항 지부 회원과 선교사들이 이재민을 돕고자 나섰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승인에 따라 11월 25일 이른 휴일 아침부터 도움의 손길 조끼를 입고 구호물자가 집결되는 포항시 양덕 한마음 체육관에 모였다. 포항시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세척 사과 21상자와 굴 50상자를 이재민에게 전달했으며, 이외에도 매트리스 등 배송 물품을 내리고 정리하며 필요한 봉사 활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날 갑작스레 일손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물문—도움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달한 과일은 흥해 공고,

흥해 체육관, 기쁨의 교회에 머무는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최근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여 봉사에 참여한 이은지 자매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많은 양의 구호물자들을 나르면서 지진 피해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물품 전달뿐이었지만 우리의 작은 봉사로 피해 주민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이 봉사의 기회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여 준 사랑과 봉사에는 교회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이 잘 나타난다.



봉사하는 청소년들과 선교사들

“교회는 단순히 조직체에 불과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친절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드러내어 줍니다.”² ■

주

1. 2017년 11월 17일 연합뉴스(YTN)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91803> 참고
2. 2017년 9월 3일,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간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안식일 모임에 우흐트도르프 회장 참석하여 전한 말씀. mormonnewsroom.org 참고.

구도자와 함께하는 성탄절 캠페인

지난 12월, 교회 본부의 기획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교회 회원들은 성탄 절기에 구주의 모범에 따름으로써 구주의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세상을 비추라”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며, 서울 선교부와 서울 동 스테이크는 12월 2일 토요일,



참여자들과 함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캠페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서울 선교부 건물 앞마당에서, “세상을 비추는” 대형 플래시몹 행사를 준비했다. 모든 참여자들은 휴대폰이나 초 모양 전구를 가지고 대열에 맞춰 별, 하트 등의 모양으로 선을 이루며 이 특별한 절기에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고자 하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플래시몹 행사에 참여한 183명 중 30여 명은 선교사와 회원들의 초대로 참여한 구도자와 이웃들이었다. 이날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다. 참여한 구도자 중 한 명은, “신선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좋은 행사라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생 구도자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전했다.

본 모임을 준비한 교문 와드 이주대 형제와 다른 참여자는, “우리들 삶에서 빛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며 마음이 모였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빛났다.”라고 각각 소감을 전했다. 계속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어, 그의 사랑과 봉사의 빛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

중앙 농아 지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때 이른 한파로 유독 추웠던 지난 12월,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은 추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 활동을 계획했다. 바로 농아인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였다.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행사에는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신당 와드 회원들, 그리고 관리 본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농아 지부 회원들의 뜻에 힘을 보탰다.

2년 전, 한국 유일의 농아 지부인 중앙 농아 지부의 활동 회원의 수가 열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서울 스테이크 회장단은 청인인 박수홍 형제를 새로운 지부 회장으로 불러 농아인들을 더욱 사랑으로 보살펴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농아인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1년 전인 2016년 12월,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 행사는,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완성된 김치를 포장하기까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비정규직으로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는 몇몇 농아 지부 회원들은 이날 수입을 포기하며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박수홍 회장이 이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농아 지부 회원들은 봉사하며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봉사했다.

박 회장은 이렇게 전한다. “김장을 이웃에게 전달한 것도 좋았지만, 매주 준비를 위해 논의하고 역할을 나누어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이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다.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아 지부 회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서 이곳이 시온이라는 생각과 함께 점점 행복해집니다.” ■

성탄절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교사와 회원들

지 난 12월 16일, 광주 스테이크는 성탄절기를 맞아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범에 따랐다. 광주 스테이크는 2천여 장의 연탄을 광주 북구 우산동 주민 센터에 기부하고, 회원과 전임 선교사, 매드슨 대전 선교부 회장 부부 등 40여 명이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하와이에서 온 히가 자매 선교사와 서울에서 온 김한빛 장로는 각각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는 저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연탄을 전달받으시는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광주 스테이크 회장단의 조인호 회장은 “선교사와 회원들의 이러한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선교사와 함께 봉사에 참여한 교회의 김수겸 형제는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하루였습니다.”라고 전했다. 광다영 자매는 “이러한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은 처음이었는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수혜자인 주민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매드슨 대전 선교부 회장 부부가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어르신들이었는데, 덕분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러한 성탄절 이웃 사랑 실천은 광주 스테이크 지역의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매년 지속적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

노량진의 골목에서 마주친, 빛나는 열두 글자

홍콩 선교부 이한경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2 와드 독신 그룹

십대 시절,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어떤 가족의 집에 함께 살았다. 활동적인 교회 청소년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다. 그 가족과 친구들이 보여준 사랑, 모범, 그리고 간증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교회 모임에 초대받기도 했지만 침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유학 생활 2년 차,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던 시기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성신의 영향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던 나였지만,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이 가르쳐주었던 기도를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에 이끌렸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나는 “하나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고, 제 아버지라면 이 시련을 이겨내고 평온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마치 라모나이의 부친처럼 기도를 드렸다.(엘마서 22 :18 참조)

기도를 마치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과 평온함을 느꼈다.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다. 며칠 뒤인 2012년 가을, 선교사와 토론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2013년 5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새로운 와드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난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까운 와드에 가보았다. 그러나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안식일 모임에 가끔 참석하다가 이듬해부터는 아예 발길을 끊게 되었다. 갓 스무 살이 된 나는 교회 밖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빠지게 되었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파분하다고 느끼기까지 했다. 대입을 위해 수험 생활을 하며 교회와 관련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매일 노량진의 재수 학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던 생활을 지속하던, 그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나는 매우 지쳐 있었고, 평소 학원 끝나고 지나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다. 지하철역까지 걷고 있을 때, 골목길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적힌 하얀 건물과 마주쳤다.

어두운 골목이었지만, 그 순간 교회 이름 열두 글자가 얼마나 밝게 빛나 보였는지 모른다. 교회 대문을 통과하여 건물 입구로 갔다. 잠긴 유리문 너머로 노량진 와드의 복도를 바라보며 근 2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을 느꼈다.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또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다.

이튿날 일요일, 바로 노량진 와드에 참석하였는데, 마침 그 날은 노량진 YSA 그룹이 창립된 날이었다. 그룹의 첫 성찬식에서, 김영환 감독님께서 “이곳에는 교회에 오랜만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날은 정말 내게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그 날 이후 매주 교회에



홍콩 성전 앞에서 이한경 자매와 홍콩 선교부 회장 부부

참석했으며 기도를 드리고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다. 주님의 손을 다시 잡은 이후로, 내 삶은 복음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 시작했다.

몇몇 친구들과 선교 사업 지도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도 키워나갔다. 선교 사업을 결심했을 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던 나를 위해 YSA 그룹 회원들은 날을 정해 다 함께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교회 회원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활동 회원에서 1년 반 만에 전임 선교사가 된 나는 지금 홍콩 선교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1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께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신성한 계획”에 따라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세세한 부분에도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미국 아이다호의 작은 침실이나 한국 노량진의 좁은 골목, 홍콩의 화려한 도심 그 어디든, 주님의 손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잡은 그분의 거룩한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

예비 선교사를 위한 표준 접견 질문

지금까지는 신권 지도자들이 예비 선교사와 접견하도록 마련된 구체적인 질문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은 지난 2017년 10월 20일 '예비 선교사를 위한 표준 접견 질문'을 발표했다. 제일회장단은 서한을 보내어 약 두 쪽가량의 접견 질문이 담긴 공문을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냈으며, 모든 예비 선교사를 접견할 때 동봉한 표준 질문을 사용하라고 요청했다.¹

이 질문들은 경전, 교회 지침서 및 기타 교회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예비 선교사를 위한 표준,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간증, 회개, 필수적인 계명, 도덕성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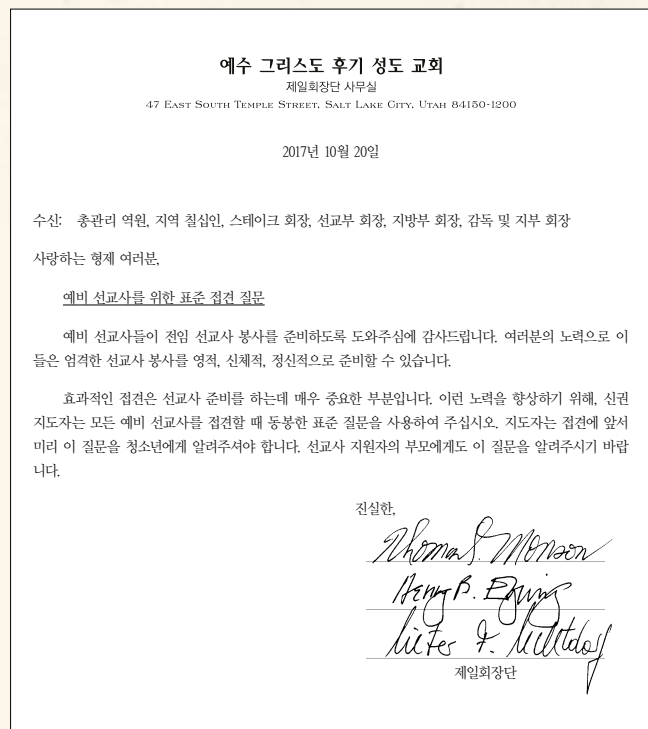
'예비 선교사를 위한 표준 접견 질문'은 전임 선교사의 봉사 요건이 수정되었거나 추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비 전임 선교사들이 "합당함[은 물론]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준비"를 갖추어야 함을 이해하고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계명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제일회장단은 이 공문에서, "선교사 봉사는 회원의 영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이 신성한 봉사의 시간이 청남, 청녀부터 부부 선교사에 이르는 모든 선교사에게 기쁘고 신앙을 세우는 경험"이 되도록 "각 선교사는 반드시 적절하게 준비하고 합당하며 건강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예비 선교사를 위한 표준 접견 질문' 활용을 위한 제언

신권 지도자

- 접견 전에 모든 예비 전임 선교사와 그 부모들에게 접견 질문을 알려 주고 그들이 이를 살펴보고 논의하도록 격려한다.
- 와드 평의회에서 접견 질문을 논의한다.
- 다섯째 일요일이나 다른 토론 모임에서 성인 회원들과 함께 이 접견 질문을 살펴보고 청소년이 선교 사업을 잘 준비하도록 부모가 도울 방법들을 논의한다.
- 청남 청녀들에게 이 접견 질문을 알려 주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표준을



숙지하도록 한다.

부모

- 자녀의 선교 사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 자녀에게 선교 사업을 위한 자격을 알려주고 자녀가 표준을 잘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다.
- 접견 질문을 가정의 밤 공과 및 토론 주제로 활용한다.

선교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

- 표준 접견 질문들을 활용해 자신의 준비 상태를 가늠하고,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에 대해 부모나 신권 지도자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

주

1. 10월 20일 제일회장단 서한, 예비 선교사를 위한 표준 접견 질문. 1쪽.
2. 교회 소식, <https://www.lds.org/church/news/church-releases-standard-missionary-interview-questions?lang=kor> 참고.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7명 / 새로 부름받은 봉사 선교사: 2명 (부부 1쌍)



강경남 장로

경기 스테이크
평택 와드
뉴욕 뉴욕 남
선교부



권재현 장로

창원 스테이크
마산 와드
서울 남 선교부



박경연 자매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서울 선교부



오설아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일본 도쿄 선교부



정은규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정지현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일본 도쿄 선교부



최명현 자매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이덕경 자매 조양호 장로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홍보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경기 스테이크

안성 지부 회장: 이병걸 형제(전임: 정필래 형제)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회장: 강형구(전임: 김용록 형제-지부 지도자 대리)

창원 스테이크

통영 와드가 통영 지부로 변경됨

통영 지부 회장: 박찬우 형제(전임: 서순갑 형제-감독)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